

중국 배추·중국 무 대량 공습

10월 한달 배추 691t·무 374t·김치 2만7,005t 수입

음식점이어 일반 소비자까지 구입... 국내 업체 타격

배추·무 등 국내 채소가격이 재배 면적 감소와 작황부진으로 초강세를 보임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물량이 홍수처럼 들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김치업체들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다 중국산 김치와 배추 등에서 인체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검역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배추·김치수입량 급증=25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무역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10월 한달동안 우리나라는 모두 19만665달러어치(691t)의 배추를 수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2만8천619달러(106t)와 비교해 금액기준으로 6.7배, 물량 기준으로 6.5배에 이르는 규모다.

같은 기간 무 역시 작년 동월의 2.7배인 18만2천992달러어치(2.2배 374t)가 들어왔고, 김치 완제품 수입액과 물량도 각각 1천381만1천802달러, 2만7천5t으로 43%, 40%씩 급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처음 무역역조를 기록한 김치의 경우 올해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김치 수입액은 총 8천476만7천754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6% 증가한데 비해 수출(6천15만8천970달러)은 불과 3.1% 늘어 결과적으로 적자가 2천460만8천784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수입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김치의 경우 '싸이클라메이트'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감미료가 검출돼 발암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국산·중국산 김치 식별법		
구분	국산	중국산
김치 색깔	색깔이 푸르며 물이 적다	색깔이 흰색이며, 물이 많다
젓갈 맛	젓갈맛이 풍부하다	거의 없거나 적게 난다
육은 김치맛	고유의 맛과 향이 강하다	역겨운 냄새가 난다
씹었을때	아삭아삭하며 단단하다	물렁거리며 퉁퉁한 맛이 난다

■ 국산·중국산 배추 식별법		
구분	국산	중국산
모양	상·하단쪽이 비슷한 장구형	하단보다 상단이 넓은 일축형
숙일 색깔	진한 노란색	연노랑고 고소한 맛도 약하다

중국어산 김치 대형급속소 등 점령 =국산 배추와 김치가격이 지난해보다 50~100% 상승하면서 중국산 김치를 찾는 식당이나 일반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이 지난 5~8일 전국 8개 도시 732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김장수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14.2%가 "중국산 김치를 직접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05년 4.4%에 불과했던 이 비율은 지난해 10.8%를 거쳐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중국산이 밀고 들어오면서 김치업체들도 고전하고 있다. 광주 N사는 "국산 배추값이 지난해에 비해 두배 가량 뛰었다 중국산 김치맛이 국산과 별 차이가 없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내수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식당에서의 김치 원산지표시제 도입, 김치관세를 상향조정, 수입 검역강화 등을 서둘러야 김치종주국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



오피러스가 와인파와 만날 때

기아자동차는 지난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피러스 고객 200여명(총 400명)을 초청, '유지력과 함께 하는 오피러스 와인축제'를 열었다. 인기 뮤지컬 배우 남경주(오른쪽)와 김선영(왼쪽 두번째)이 와인 파티장에서 홍보도우미들과 포즈를 취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광주 집값 일조·조망권따라 11% 차이

서울 최대 42%·전남은 9%대 격차

광주지역은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평면의 아파트라도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따라 집값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일조·조망권에 따라 집값이 최대 42% 이상 차이가 나는 반면, 전남은 9%대의 격차에 그치는 등 대도시일수록 주거환경에 따른 집값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한국감정원 유은철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일조, 조망 등 주거환경요인이 주거용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에 따르면

일조·조망권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 집값이 평균 13.9% 차이를 보였다. 또 인구집중으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대도시일수록 일조나 조망 등 주거환경에 따른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는 일조·조망에 따라 평균 집값 격차가 11.2%로 나타났으며, 최대 격차는 26.8%에 달했다. 전남은 일조·조망에 따른 평균 집값 격차가 각각 9.6%, 22.2%로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울산이 17.1%

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15.3%), 대전(13.3%), 대구(13.2%), 부산(12.4%)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많은 광진구가 23.2%로 일조와 조망에 따른 가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중구(22.8%), 성동구(19.8%) 등이었다.

하지만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높은 강남구(11.0%)와 서초구(10.9%) 등에서는 일조와 조망에 따른 가격 격차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 아파트값은 주거환경에 비해 '양호한' 교육환경과 입지여건 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의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기업 출생제 추가 출자 불가 기업

금호석화·금호타이어 2곳 뿐

지난 3월과 7월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되면서 추가출자가 불가능한 회사가 작년 58개에서 올해 2개로 줄어드는 등 거의 모든 회사가 출자제한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월 현재 출자총액 제한의 적용을 받는 25개사의 출자여력도 37조 4천억원으로 이들 회사의 적용제외 후 기존 출자액 14조9천억원의 2.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 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399사 가운데 2개사를 제외한 397개사는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거나 출자여력이 있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74개사는 출자총액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순자산의 25%를 넘어 다른 국내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한 적용을 받지 않아 출자에 제한이 없고 나머지 25개사도 출자여력이 37조 4천억원이나 돼 작년 4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이었던 14개 기업집단 343개사의 출자여력 20조5천억원보다 훨씬 커졌다.

적용제외나 예외인정 출자를 제외하고 추가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지난해 58개였으나 올해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등 2개사로 줄었는데 이들 회사는 지난해 12월 자산 6조원이 넘는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바람에 출자한도액이 소진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김치·닭·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음식점서... 2009년부터 의무화

이르면 2009년부터 김치와 돼지고기·닭고기 등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은 쇠고기와 쌀에 한정돼 있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에 쌀과 쇠고기 이외에 김치류와 돼지고기·닭고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

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200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아울러 쌀과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기존 300m(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100m(약 30평)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제도도 300㎡ 이상 음식점에 한해 구이용 쇠고기(원·탕류 쇠고기 제외)에 대해서만 국내산과 수입산, 수입 국가명 등을 메뉴판이나 팻말, 계산관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연협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대한민국 안전대상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제6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받았다.

롯데백화점은 2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광주점이 행

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대상은 소방방재청이 안전의식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광주점은 방화교육, 비상시 직원 대응요령 훈련, 화재예방 순찰, 고객 우선 대피유도 훈련 등으로 위기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장필기기자 bungy@kwangju.co.kr

항공기 승무원 취업문 넓어진다

아시아나·대한항공 내년 1,350명 채용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내년엔 객실 승무원 1천350여명을 뽑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550명, 대한항공은 많게는 800여명을 각각 채용하기로 했다. 양사가 올해 선발한 승무원 1천 200여명에 비해 150여명 늘어난 수준이다.

여기에 제주항공, 영남에, 한

성항공 그리고 내년엔 취항하는 저가항공사들의 승무원 수요까지 합치면 내년 승무원 채용 규모는 2천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승무원 지방생에게는 최고의 한해가 될 전망이다.

올해 388명을 채용한 아시아나항공은 내년엔 내국인 승무원은 신입과 경력으로 400~500명, 외국인 승무원은 신입으로 40~50명

을 뽑을 예정이다. 이번 채용확대는 파리 등 신규노선 개설과 기존 노선 운항증가 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특히 13주의 승무원 교육기간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외국인 승무원 채용확대를 통해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

www.kwangju.ac.kr

겨울방학 불리민 영이캠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1. 영이캠프 소개

2. 캠프 일정

3. 참가비용

4. 신청방법

5. 문의처

장학생선발

바라보는 미래, 기대되는 꿈꾸어주시고, 바라는 것은 꿈을 세우고,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1. 선발대상

2. 선발절차

3. 선발결과

4. 장학금

5. 기타사항

www.kwangju.ac.kr